기사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2601614?fbclid=IwAR0Vmcw1T68n8t0pCG8IS8qCuTnNKb94shb3ThQEm4194Nw5-5IMheKiJa0#home

https://m.sedaily.com/NewsView/1KSO9Q8163?fbclid=IwAR31DvZf8WNFuGwPhdNWWXT8BKJZlYPCX1szzITTsuDHQTCxmd-UtXJkwh4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3996426?fbclid=IwAR0empUquRpM0_6QH8uWDuFiw1XPO0ehVAGLbe8CL9wgPUl2uotJ_s5rhZw#home

화성유인탐사 반대 입장 (Opposing a manned mission to Mars)

- 현재 기술로는 화성에 도착한 후 화성에 살 수 있는지, 또는 화성에서 언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. 지구로 돌아오려면 지구와 화성이 제일 가까운 궤도에 돌고 있을 때를 기다려야하는데 적어도 26개월을 기다려된다. 자원을 생각했을 때는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더 비싸고 어려워진 셈이다. 적어도 필요한 연료와 26개월간의 생존 조건 (예를 들어서 식량, 산소)를 유지해야된다.
    - 화성에서 식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데 탐사에 필요한 식량을 다 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.
    -
- 기술의 전진이 불확실할 때는 마구 도전해보는 것보다는 더 작고 안전한 실험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졌을 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함으로, 지금 화성유인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시기에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
- 기후변화와 다른 여러 지구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,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유인탐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돈 낭비다.
- 현재 스페이스X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유인화성탐사를 진행하는데, 민간기업에

화성유인탐사 찬성 입장

- 유망한 미래를 위해서 어렵고 불확실한 탐사를 해야지 기술 발전이 있을 수 있다. 옛날에도 달 탐색할 그랬듯이,

- 화성 유인 탐사는 돈 낭비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유인탐사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에 투자는 미래의 우주여행 기술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.
- 전쟁 시 여러 비윤리적인 의료 실험으로 현재의 의료 기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뉘른베르크 강령에 따르지 않는 실험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없다.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유인탐사가 본인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가면 충분히 인류의 발전 그리고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좋은 돈 쓰임이다.